

K팝 차트 30년 '음반킹'은 BTS



서태지와 아이들



BTS

국내 음반 차트인 한터차트를 운영하는 한터글로벌이 1993년 이래 대한민국 연간 음반 판매량 '톱 10'을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터차트가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연간 음반 판매량 1위는 당시 크게 히트했던 서태지와아이들의 2집 '하여가'로 213만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터글로벌은 이 앨범이 "대한민국 공식 첫 200만장 판매량 돌파 앨범"이라고 설명했다.

이 해엔 밀리언셀러 음반이 무려 7장이 나왔다. 같은 해 신승훈 3집 '널 사랑하니까'는 173만장, 김중서 2집 'PETSND2'는 134만장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이무송의 '잃어버린 시간'은 121만장, 김원준 1집 '눈에 띄고 싶어'는 113만장, 박정운 3집 '먼 훗날에'는 110만장, 공일오비(O15B) 4집 '신인류의 사랑'은 109만장을 기록했다.

1995년에는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별' 등

1993년 '하여가' 첫 200만장 돌파
2005~2007 SG워너비 연간 1위
BTS, 최근 5년 연속 부동의 1위
2020년 한 해만 723만장 판매고
한터글로벌, 내년 오프라인 시상식

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건모 3집이 286만장이라는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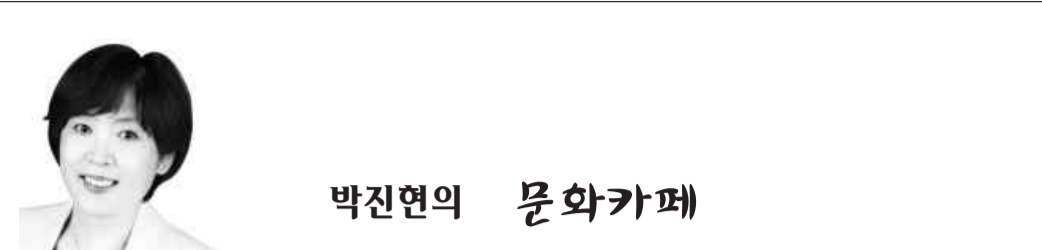
한터차트는 1999년까지는 단일 앨범을 기준으로 '톱 10 앨범'으로 순위를 집계했고, 2000년부터는 가수를 기준으로 아티스트가 한 해 판매한 모든 앨범의 총 판매량을 합쳐 '톱 10 아티스트'로 순위를 매겼다.

댄스 음악 대신 아르앤디비(R&B)가 인기를 끈

2000년대 중반에는 2005~2007년 3년 내리 SG워너비가 연간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09~2010년 소녀시대, 2011~2012년 슈퍼주니어, 2013~2015~2016년 엑소가 각각 정상에 올라 아이돌 그룹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특히 2017년부터는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BTS)이 1위를 차지해 월드스타의 위상을 뽐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한해 무려 723만장에 달하는 음반 판매고를 기록해 2위 세븐틴 218만6000장의 3.3배에 달했다.

한터글로벌은 한터차트 30주년을 맞아 내년 2월 10~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첫 오프라인 시상식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2'도 연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 세븐틴,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 키즈, 에스파 등 '2021 한터뮤직어워즈'에서 초동기록상, 아티스트상, 신인상, 후즈댄텀상, 특별상을 수상한 아티스트들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박진연의 문화카페

"세상이 어떻게 가도/들어온 빛이 변함없는 것/그것은 항상 함께 사는 것/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3층 전시장 입구에 다가가자 벽면에 선명하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내게 비추는 빛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들 무렵, 전시장에서 귀에 익숙한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 (My Way)가 흘러 나온다. 중저음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인상적인 노래는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생을 되돌아 보며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내용이다. 요즘처럼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린다 보니 송년 모임 등에서 많이 불려진다.

시립미술관이 연말 연시를 맞아 야심차게 기획한 특별전이다. 이이남 작가의 자전적 경험과 1980년 광주의 5월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역사적 비극이 예술로 승화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작가가 유년시절의 기억을 담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들려주는 마지막 장(場)인 '순수, 뿌리들의 일어섬'은 하이라이트다.

매년 이맘 때면 한해를 되돌아 보는 전시와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송년 발레의 대명사인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21~2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미술관 송년회' 어때요

'마이웨이'가 유독 가슴에 와 박히는 건 전시장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피에타상' 덕분이다. 부활의 상징인 '뿌리-반디니 피에타' (2.4m 높이), '뿌리-룬다니 피에타' (2.1m)와 동양화의 산수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은 죽음과 삶은 결국 하나라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순수, 뿌리들의 일어섬'이라는 테마로 약 10분 간 영상 세편이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전시는 한편의 영화 같다. 특히 '넬라 판타지아' 선율과 함께 전시장의 4개면에서 휘몰아치는 파도의 역동적인 물결은 세파에 찌든 영혼을 씻어 내듯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화려한 영상과 아름다운 음악이 빚어낸 드라마틱한 광경을 접하며 코로나19와 바쁜 일상으로 지친 마음을 달랠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이이남 특별전과 전남도립미술관의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내년 1월 29일까지)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루오전의 5개 섹션 가운데 하나인 '미제레레'(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의 라틴어)는 검은 벽면에 걸린 58점의 판화 연작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종교적 색채를 통해 위로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참혹한 현실에서 외친 절규이자 간절한 기도를 담은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

한해의 그트머리인 12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아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건 어떨까. 작품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예술적 감동 이외에 세파로 무뎠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잊고 살았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는 건 덤이다.

<문화·예향국장, 문화선임기자>

'올해의 광주문학상' 선정

오소후·이보영 시인, 탁인석·박연식 수필가, 배다인 동화작가



16종 체험형 야외미션투어

광주관광재단, 16일까지 이벤트

광주관광재단이 이달 16일까지 관광콘텐츠 '리얼월드 광주하다'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얼월드 광주하다'는 광주관광재단에서 진행한 로컬관광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으로, 지역 관광 자원과 ICT 기술이 접목된 16종의 체험형 야외 미션투어 형식으로 구성됐다.

'버스타고 광주 방문 이벤트'는 타지에서 출발해 광주가 목적지인 티켓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리얼월드광주, #광주관광재단 #광주 야외방탈출 #이상한 터미널의 유숙이를 모두 포함한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이상한 터미널의 유숙이' 굿즈를 제공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는 광주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이상한 터미널의 유숙이'를 제외한 15종의 게임 중 1가지를 진행한 뒤 마지막 게임 참여 인증샷을 '버스타고 광주 방문 이벤트'와 동일한 해시태그에 진행한 게임 이름을 추가해 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전일빌딩 245 8층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리얼월드 광주하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혹은 앱 스토어에서 '리얼월드'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광주'를 검색해 시행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블랙핑크, 美 타임 '올해의 엔터테이너'

걸그룹 사상 최초

걸그룹 블랙핑크(사진)가 미국 타임 선정 '올해의 엔터테이너'에 올랐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이 부문에서 걸그룹이 선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타임은 "블랙핑크는 트렌드를 이끄는 현대의 아이콘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밴드"라며 "올 한해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K팝 그룹임은 물론, 두 번째 정규 음반으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타임은 이들이 올해 8월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 무대를 꾸몄고, 이어 조대



형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또 전 세계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자랑한다고도 전했다.

블랙핑크는 2019년 타임 선정 '넥스트 100인'에 올랐고, 2020년에는 '올해의 인물' 후보로 뽑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올해의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오소후(시), 이보영(시조), 탁인석·소묘란(수필가), 배다인(아동문학)씨가 선정됐다.

광주문인협회는 최근 심사회를 열고 2022년 제35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문학상은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작가의 작품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원범 시인은 "오소후 작가는 시적 상상력이 활달하고 사유가 깊으며 이보영은 서정성이 뛰어나고 서사적 압축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동화의 배다인은 다채로운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의 공감을 얻어 내었고 소묘란의 수필은 정확적 사고의 깊이가 있으며 탁인석의 수필은 시대를 읽는 혜안이 뛰어났다"고 평했다.

또한 올해의 작품상에는 박연식의 수필과, 임린의 시가 선정됐다. 작품상은 지난 2021년 겨울호부터 2022년 가을호까지 광주문학에 게재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7일 광주예총 지하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주문인협회가 발간한 역대 '광주문학상 수상자 전집'도 배부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